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족부합병증 - 족부절단수술을 받는 환자 2인 인터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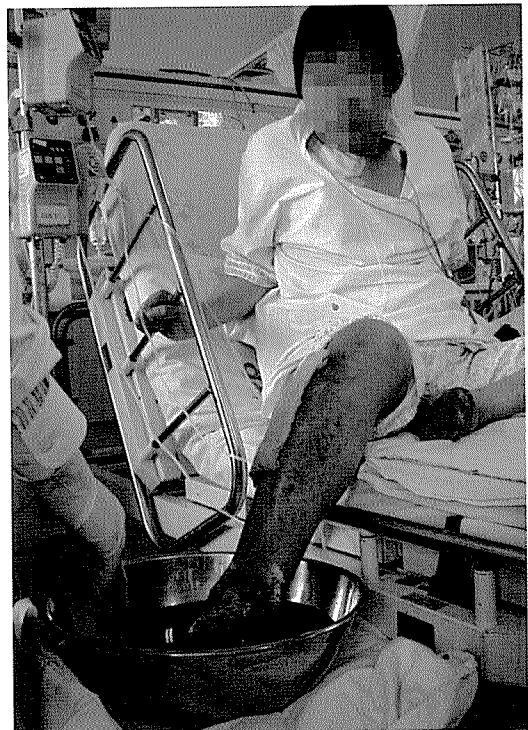
당뇨병이 생기면 건강할 때에 소홀했던 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 달 만나본 가톨릭성기병원에서 만나본 두 명의 당뇨병환자는 족부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한명은 발관리를 더욱 잘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잘못된 상식으로 해를 입고 절단한 경우이고, 나머지 한명은 발관리에 무심한 채로 혈당관리를 하지 않아 절단까지 하게 된 경우이다. 이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발관리의 중요성과 합병증의 위험을 알아본다.

당뇨병이 생기면 건강할 때에 소홀했던 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 달 만나본 가톨릭성기병원에서 만나본 두 명의 당뇨병환자는 족부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한명은 발관리를 더욱 잘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잘못된 상식으로 해를 입고 절단한 경우이고, 나머지 한명은 발관리에 무심한 채로 혈당관리를 하지 않아 절단까지 하게 된 경우이다. 이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발관리의 중요성과 합병증의 위험을 알아본다.

오른쪽 엄지부터 중지 발가락에 괴사성 변화가 생겨 가까운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했다. 하지만 그 치료 중에도 열이 나고 증상의 호전이 없어서 종합병원으로 옮겨 2주 이상 입원을 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열치료로 발에 화상을 입은 당뇨인

가톨릭성기병원 입원실의 신인철씨는 7년 전 당뇨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양발이 저리고 아픈 증상이 생겨 평소 사용하던 원적외선 치료기를 한번 발에 사용해 보았다. “발이 따끔따끔하니까 열을 쬐면 증상이 좀 나아질 것 같아서 집에 있는 원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했지요.” 하지만 혼자서 원적외선 열 치료를 하던 중 발에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뜨거움도 몰랐고 결국은 발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 결국 왼쪽 엄지발가락 쪽에 궤양과



방문 당시 담당 전문의는 “현재 뼈에 염증이 생기지 않아 관리가 잘 되면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염증이 생기면 혈당도 올라가기 때문에 염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무좀이나 발톱을 안전하게 깎는 것도 중요하겠지요.”라고 전했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연락해 본 결과 담당 전문의는 “현재 지속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발의 괴사성 변화가 진행되어 정형외과적으로 오른쪽 발의 절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환자의 하지혈관도 많이 좁아져 있어 치료가 힘든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혈당관리가 필요하고 물론 금주, 금연은 필수입니다.”라는 어두운 답변을 들려주었다.


나태한 관리로 패혈증까지 합병된 당뇨병인

중환자실에 입원한 윤재복씨는 늘 재미있는 농담으로 중환자실의 분위기를 환기시켜 주는 당뇨병인이지만 발 문제에서는 심각한 상황이다. 15년 전 당뇨병을 진단받고 별다른 치료없이 지내다가 5년 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발을 다쳐 당뇨병성 족부질환으로 진행되었다. “이제는 발 문제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도 지겹습니다. 벌써 3번째 입원이니까요.”

윤재복씨는 2000년 10월에 오른쪽 두번째 발가락을 절단하고, 2002년 1월에는 왼쪽 세번째 발가락을 절단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퇴원 후 가끔 혈당강하제를 복용하면서 당뇨병을 허술하게 관리했다. 그러던 중 한달 전부터 오른쪽 발의 부종과 통증이 있어 민간요법과 파스 등으로 증상을 조절하다가 얼마 전 증상이 심해져 응급실을 통해 내원했다고 한다.



“왜 또 다리가 이렇게 화끈거리고 저릿저릿하게 아픈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마 술과 담배 때문에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담배는 두달 전에 끊기는 했는데, 글썄... 완전히 끊은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퇴원하면 또 돈을 벌어야 하는데, 다리가 아파서 걱정입니다.”

담당 전문의는 윤재복씨가 내원할 당시 저혈압과 패혈증 증상이 있었는데, 온 몸이 시커멓게 부어오른 심각한 상태로 입원했다고 전했다. 부종은 고름으로 인해 생긴 것이었으며 항생제 치료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은 없다고. 또 예전부터 윤재복씨에게 발 관리에 신경쓰지 못하면 절단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은 것 같아 반복해서 발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번에는 쉽게 퇴원하지 못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마침 하루에 한번 시행되는 봉대교체 시간이라 옆에 소독과정을 지켜보았다. 다리가 움푹패일 정도로 많이 상했지만 정작 윤재복씨 본인은 별다른 통증은 없는 듯 했다. 병원방문 후 윤재복씨의 근황을 알아보니 3일 전 하지절단수술이 시행되었다고 한다. 

글 최현주 기자